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해운업계와 현안 논의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운협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
- 해운기업 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조와 지원 당부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2일(금) 해운기업 대표로 구성된 해운협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운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출입 물류의 최전선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운기업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진출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해운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갇혀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운업계가 우리 선원 및 선박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중동전쟁 피해 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비롯하여 부산 이전 해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전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산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 원 배 (051-773-5710)
		담당자	서기관 오 성 철 (051-773-5711)
	서기관 김 지 환 (051-773-5716)		
	사무관 이 은 재 (051-773-5745)		
선원정책과			